

1. **결산의 달:** 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2. **남여전도회 연합회 임원선출:** 오늘 예배 직후에 나누어드린 투표용지에 남전도회연합회장과 여전도회연합회장을 각각 선출합니다. 기도하고 한명의 이름만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 **헌신예배:** 오늘밤은 남녀전도회기관장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사회와 대표기도는 남녀전도회연합회장이 담당합니다.
4. **부흥성회인도:** 당회장 손종기목사님께서 금주 11월24일(화)밤-26일(목)까지 부산 범천중앙교회 부흥사경회 인도 차 가실 계획입니다. 기도바랍니다.
5. **추계대심방:** 대심방을 지난주간으로 마쳤습니다. 누락된 가정은 개별 연락 하여 심방을 할 계획입니다.
6. **2009년 추계부흥회:** 총력전도 및 부흥집회를 12월6일(주)부터 9일(수) 밤까지 안양신일교회를 담임하여 교회를 크게 부흥하도록 충성하신 윤광중목사님을 감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 **부흥회준비 기도회:** 오늘부터 한주간 부흥회전 특별새벽기도회 실시합니다.
➢주보 순서지를 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보9쪽 참조).
8. **TV설교:** 담임목사님 주일낮 설교가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기독교방송 TV강단 시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유선채널- 74번, 42번).
라디오방송은 매주 화요일 새벽5시35분 FM 103.1에서 방송됩니다. 시청바랍니다.
9. **주일점심:** 오늘 점심은 이현일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십니다.
➢다음주는 이동만 장로님 가정에서 접대해 주시겠습니다.
10. **각반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금요기도회:** 27일 금요기도회는 제1남전도회 특송 및 기도 담당입니다(저녁8시).
➢기도는 영육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합시다.
12. **하루 교회숙직제 실시:** 계속하여 숙직제도를 시행 일자별로 정했습니다.
➢각자 차질이 없도록 실시바랍니다(1층 접견실 및 기도굴에 온열난방 설치).
➢금주담당자: 임현옥, 장현자, 조선경, 김복희, 이난순, 박미정, 이정자
13. **예결산위원회:** 내일 11월23일(월) 오후6시 기도실에서 2010년 예산과 2009년 결산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대상: 당회원,재정부회계, 선교부, 교육기관부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남여전도회연합회장
14. **신대원방문감사:** 지난 17일(화) 천안시에 소재한 고려신학대학원에 당회장님 내외, 장로님4명, 권사님7명, 집사님2명이 방문하여 신학원생,교직원 400여명에게 중식을 접대하고 교단의 순교기념관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협조하신 기관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 **다음주:** 각기관 총회, 당회로 모입니다.
➢각기관은 한주간 심방을 하여 필요적합한 일군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주일전도:** ➢중고등부,아브라함-최지혁부목사 ➢5여,6여전도회-전순이전도사
17. **주일심방:** 김기태 김태석장로, 박미정 권화숙권사(환우, 낙심자 심방)입니다.
18. **입원성도:** 성심병원(윤정희집사-319, 김금례집사-316, 최봉주성도-311)
조대병원(조춘자성도), 전대병원(전종진집사)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순위	성명	기관	구역	주소	전화번호	접김이	인도자
9277	김미현	대학	35	광주여대 기숙사	010-7337-1069	김예슬	김예슬
9278	박미희	청	36	서구 양3동 439-88	010-6460-4028	김현열	스스로

한글교회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롬12:12)

담임 교역자
손종기 목사
(010-7283-8291)

남녀기관장 헌신예배

11월은 결산의 달

* 매주 수요일 오후6시55분 CBS(TV 74.42) TV강단 주일낮 설교 방영
* 매주 화요일 새벽5:35-5:55 CBS라디오(FM103.1) "오늘을 보람 있게"
* http://www.hanamekch.com/ *E-mail: jkson9004@naver.com

◆시무장로: 이준호 김기태 정하섭
김문옥 김명관 이현일 김병업
이동만 객세종 송희중 옥 룡
김종철 최상운 김요상 김희중
진영만 김태석
◆은퇴장로: 윤 석
◆ 찬양위원장: 김문옥 ◆
【할렐루야성가대】
◆대장: 옥룡, 지휘:최재현(오광록)
◆반주: 객지혜 · 이은혜
【마리아성가대】
◆대장: 김태석, 지휘: 김유영
◆반주: 전미영 · 계경숙

11/1-7 제121차 여리고작전 새벽기도회, 산상기도회
9/28-11/24 가을대심방 실시-각 구역별 가정 심방
11/1 제9여전도회 헌신예배
2남, 3남, 리브가, 한나여전도회 전도주일
11/8 제10여전도회 헌신예배
4남, 5남, 1여, 2여전도회 전도주일
11/15 추수감사주일 · 성례주일(유세,학습,세례,입교)
선교헌신예배, 정기교육위원회
청년부, 대학부, 3여, 4여전도회 전도주일
11/22 중고등부, 아브라함, 5여, 6여전도회 전도주일
11/29 각기관 총회, 당회

◆교 회: 953-3983, 070-7430-3983, 4 ◆서재: 070-7430-3985 ◆목사관: 962-3301
◆부목사: 최지혁 ◆강도사: 문종승 ◆전도사: 김성훈 서향임 전순이
(010-3615-1638) (010-7617-4070) (010-8327-7655) (018-629-2785) (010-2999-7540)
◆외국인근로자담임 석창원목사 ◆하남은광홀스쿨: 강미순교육사
(010-3604-8139) (955-8291)

주일 낮 예배

1부 8시30분 사회: 손종기 목사
2부 11시 설교: 손종기 목사

조용한준비 다같이(반주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개회송영 성 가 대
*기 원 사 회 자
*찬 송 .. 26 (통14) .. 다같이
*성시교육 .. 제 47 문 .. 다 같이
*사죄확신 다 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 송 .. 314 (통511) .. 다같이
기 도 1부 최상운장로

2부 김명관장로

성경봉독 룻4:1-6(구406)
찬 양 할렐루야성가대
말씀선포 손종기 목사

“가장 귀중한 선택과 포기”

기 도 다 같이
찬 송 .. 542 (통340) .. 다같이
봉 헌 다 같이
감사기도 설 교 자
*주기도송 다 같이
*축 도 손종기 목사
교회소식 영상광고
새신자환영 다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제 찬송 .. 428(통488) .. 다같이

- 서로 인사하며 교제 합시다 -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30분 사회: 남전도회연합회장
설교: 손종기 목사

열린찬양 / 설하쉬림 찬양단
대표기도 / 여전도회 연합회장
성경봉독 / 제2:8-11(신400)
찬 송 / 292 (통415) / 다같이
말씀선포 / 손종기 목사

“죽도록 충성하라”

헌 금 / 309 (통409) / 사회자
교회소식 / 영상광고
축 도 / 손종기 목사

-주일밤 성경통독-
오후 7시~8시(사도행전)

삼일기도예배

저녁 7시30분 사회: 이현일 장로
설교: 최지혁부목사

찬 송 / 95 (통 82) / 다같이
대표기도 / 황정선 권사
성경봉독 / 요2:1-11(신144)
특 송 / 제5구역원 일동
말씀선포 / 최지혁부목사
“가나 혼인잔치”

헌금기도 / 93 (통 93) / 김순심권사
광고축도 / 손종기 목사

새벽 5:00 인도: 손종기 목사

11 월 헌금위원 및 안내위원

다음주 봉사자

헌금	1부	옥 룡
	2부	옥 룡 조윤희 장기술
안 내	조윤희 서진욱 박동수 이건욱 김준영 박종관 김영산 조선경 문채숙 김숙자 김숙경 권혜숙 김순신 김점덕 서정숙 송숙란 신은숙 양선숙 우숙희 이현순 정순영 전운선 계경숙 양재숙 강춘자 정영옥 김혜진 김해진 양순옥 정영순	

다음주일 낮기도: ◆1부 김종철 장로
◆2부 이현일 장로
다음 주 일 오후 기도: 진영만 장로
다음 주 삼일기도: 임현옥 권사
금주 11/28(토) 청소: 5남, 10여전도회
이번주(22) 식사당번: 25 ~ 28 구역
다음주(29) 식사당번: 1, 2, 3 구역

지난주 구역예배 보고

지구장	구역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다음장소	구역장	전 화	우리는 돕는 선교사
제1지구장 이준호장로	1	김요상	6	10000		김혜경	김요상	954-3319	남도시민교회/5만
	2	양혜숙	2	5000	45	박영심	양혜숙	951-2437	곡성교회/15만
	3	김순덕	4	4000	30	임태례	송희중	953-7579	서부은광교회/5만
제2지구장 김기태장로	4	송미경	4	10000		신은숙	김태석	434-2827	나주신광교회/5만
	5	교 회	3	17000	45	교 회	이현일	952-5880	서림교회/5만
	6	윤 석	7	10000		전향남	이동만	953-0774	겸면중앙교회/5만
제3지구장 정하섭장로	7	송숙란	4	8000		육영란	조선경	952-1672	심미교회/5만
	8	박성희	5	8000	295	박연주	박의하	954-4684	광덕교회/5만
	9	진영만					진영만	434-2902	연화교회/5만
제4지구장 김문옥장로	10	이길례	4	5000		김경애	신애란	452-2038	장산중앙교회/5만
	11	최상윤	4	13000		전윤선	최상윤	384-8475	연동은광교회/5만
	12	손문옥	9	10000		최재현	손문옥	962-6487	운남평화교회/5만
제5지구장 김명관장로	13	최순희	7	8000	142	김숙경	김숙경	956-5064	구름다리교회/5만
	14	김양선	4	5000	20	윤정희	서향임	951-2785	경동교회/5만
	15	김효식	4	4000	10	이옥순	최옥기	955-8951	금호동교회/5만
제6지구장 이현일장로	16	교 회	3	5000		임혜숙	김숙자	447-5214	영광교회/5만
	17	강미순	5	9000		김선애	조윤희	954-3784	장흥용산중앙/5만
	18	교 회	3	6000		옥 룡	옥 룡	430-2360	노력도교회/5만
제7지구장 이동만장로	19	김기태	2	2000		박경남	김기태	952-8667	문일환 목사/5만
	20	김홍순	5	8000		이준호	이준호	952-8590	세계포도원교회/5만
	21	한만희					한만희	956-0484	삼기중앙교회/5만
제8지구장 곽세중장로	22	김문옥	4	4000	30	문남철	김문옥	954-2660	남악신광교회/20만
	23	오영자	2	4000		이가영	나오임	070-7522-8550	군선교연합/5만
	24	김종철	5	6000	72	우숙희	김종철	953-9917	반석교회/5만
제9지구장 송희중장로	25	김혜진	3	5000		김은경	서점순	961-8640	오치은광교회/10만
	26	대심방	5	2000	36	정수경	안영철	01050437055	기독교 방송국/15만
	27	손우정	5	5000		이영희	손종기	962-3301	기독교 방송국/15만
제10지구장 옥 룡장로	28	교 회	5	5000		교 회	서진욱	413-5357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8/1	정현아	3	5000		허성복	전순이	01029997540	중도실명자 선교회/5만
	29	김경식	3	10000	40	오순애	김성훈	952-3304	
제11지구장 김종철장로	30	안수집사회				안수집사	조윤희	954-3784	
	31	권사회				권사회	이정자	952-9380	
	32	중등부				중등부	양지수	431-1198	
제12지구장 손종기 목사	33	고등부				고등부	이지훈	962-7727	
	34	은광아남	25	10000		어린이집	임현옥	954-2360	
	35	대학부				대학부	진근모	01036852902	
제13지구장 최지혁부목사	36	청년회				청년회	이현복	0116066073	
	37	백두산업				백두산업	양순희	(055)964-1412	
	38	영연스쿨				영연스쿨	방정원	954-2787	
	39	교 회	4	8000	70	교역자	최지혁	385-1320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을 경솔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차지’하는 것을 세상적인 승진이나 출세의 개념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교회를 다닌 년 수가 충분하면 무슨 직분을 ‘따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풍조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비성경적이며 교회를 망치는 사탄의 꾀계에 속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세상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종류와 그 주신 목적을 바로 알 때 이러한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를 통해 직분의 종류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에 관해 알아보십시오.

1.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고전12:28).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28은 몇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세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임명하셨으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사도란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을 기록했으며 교회를 창설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선지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목회자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 새가족반 교사 등을 가리킵니다. 이와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롬12:6-8,엡4:11). 교회는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엡1:4).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말하셨고, 성도들을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사람의 지식, 돈, 외모, 건강, 가문에 의해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비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 받은 사람이기에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3.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고전12:31).

바울은 직분의 종류를 이야기하며 사도, 전지자, 교사를 말하였습니다. 이 세가지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직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는 병 고치는 것과 영적 은사 등과 같은 다양한 직분을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직분의 등급을 나누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몸의 각 지체들도 하는 일이 각기 다르듯 하나님의 직분도 각기 다른 직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말씀 전하는 일을 하거나, 다스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 은사가 더 낫다고 말씀 전하는 은사보다 앞세워 교회를 어지럽혀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직분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은사를 받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마22:37-40). 이 대 강령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 되기를 포기 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서 기쁘게 감당한 보아스는 그의 이름이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역사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조상의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먼저 기업 무를 자(6절)

- 1)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 했습니다.
- 2)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 3)탐심이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2. 자기 본분을 다한 다음 기업 무를 자(4절)

- 1)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 했습니다.
- 2)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 3)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역량을 제공했습니다.

3. 가장 귀중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 사람들.

- 1)나오미는 하나님 경외의 의무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귀향 했습니다.
- 2)룻은 시어머니 공경의 의무를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 3)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맺는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욕망 속에서 세상 것을 가치로 알고 추구 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온 자를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사랑도, 인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빈 손들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사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개아래 들어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업 무를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성도에게는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건물과 도로를 복구하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함부르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도 파괴된 교회를 복구하느라 전교인이 나와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던 예수님 동상이 폭격으로 인해 부서졌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부서진 조각을 일일이 찾아서 짝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렵게 조각을 찾아 거의 복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했지만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다시 제작해서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없는 채로 놔두자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문제로 회의를 한 결과 그냥 손이 없는 채로 놔두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상은 손이 없는 채로 복원이 되어 다시 교회 앞뜰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대신 동상 맨 밑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써넣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도 차질 없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남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해를 수고해 오신 ‘예수님의 손’들에게 감사하면서 새롭게 세워질 예수님의 손 ‘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선택하여 세우게 하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는 모든 지체가 함께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관장과 구역장, 부서의 책임자와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 세우실 ‘예수님의 손’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은광교회 성도들은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고 말 했던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아 주소서 우리는 풀이 다 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사오며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몽당연필 되게 하시고 봉당빛자루가 되게 하소서 금년에도, 명년에도, 주님오실 그 때 까지 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 주시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의 곁으로 가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어두움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한줄기 빛으로 살게 하소서. 사명이 다 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이천구년 십일월 이십이일
담임목사 손종기

기간 : 2009. 11. 22(주) ~ 28(토) 새벽5시

일시	사회	기도	특송	설교	통성기도
11/22 주	최지혁부목사	문종승강도사	교역자	손종기 목사	사회자
11/23 월	이준호 장로	김기태 장로	당회원	"	"
11/24 화	이정자 권사	임춘진 권사	권사회	"	"
11/25 수	조운기 집사	김용신 집사	안수집사회	최지혁 부목사	"
11/26 목	이현일 장로	이동만 장로	남전도회 회장단	"	"
11/27 금	황정선 권사	장현자 권사	여전도회 회장단	"	"
11/28 토	문종승강도사	서향임전도사	복지사역팀	손종기 목사	"

진행순서: 신앙고백, 찬송, 대표기도, 특송, 설교, 통성기도

【통성기도제목】

➡첫 번째

- ▶ 전교인 100% 참석하는 부흥집회 되게 하소서
- ▶ 성령충만, 은혜충만, 은사충만 한 부흥집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 ▶ 좋은 날씨, 기쁨의 잔치, 큰 열매 맺는 부흥집회 되게 하소서.
- ▶ 사탄의 방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부흥집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 ▶ 세우신 강사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소서.
- ▶ 안내, 접대, 기도담당, 차량담당, 시설관리 요원들에게 능력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향기로운 예물

● 십 일 조

교역자 : 서향임
 장로 : 최상윤 김태석
 안수집사 : 장승준 장기술 서진욱 조윤기
 권사 : 양혜숙 김숙경 모순자 조선경 이봉순 이정자
 집사 : 이현복 정수경 이현순 손상원 이동식 임이택 이병욱 김혜경 김선애 양선숙
 ♥♥♥♥ : 진선미 김영숙 진현정 김영월 오남님

● 감사헌금

안수집사 : 최재현 이병권 김재한
 권사 : 박경남 김숙자
 집사 : 차길자 박은원 오금례 김 호 김인숙 김지현 한정자 손상원 신은숙 송미경
 김순자
 ♥♥♥♥ : 임명자 이영선 제10여 이성노 이영현 김양덕 옥승주 진용갑 조규탁 조리라
 신수철 노병호 무명2
 대심방 : 이현진 이병권 양성아 방연혁 방찬혁 안영철 정봉진 김옥남 문중승 이정순
 전현정 장미옥 우숙희 정수경 송병기 이은숙 박경희 김현경 문장현 박금용
 조복임
 추수감사 : 손종기 외 180명
 신대원 : 김숙경 제3여 무명

● 선교헌금

교역자 : 손종기 최지혁 서향임
 장로 : 김중철 김문옥 이동만 이준호 김기태
 안수집사 : 김재한 김영근
 권사 : 이정자 김홍순 모순자 진윤희 이귀님
 집사 : 김혜중 김혜경 민찬임 김인숙 김 호 손상원 이동식 육영란
 ♥♥♥♥ : 진선미 이영희 김수경 김민수

● 복지헌금

최지혁 서향임 김혜경 이동식 이성노 이영선 이영현 장자방

● 일천번제 · 건축 · 생일 · 차량

이재성 김영월 이재연 김재한 조윤기 송희종 최순희 김천대 김중철 이정자 김숙경
 김바다 김혜경 최선규 이동식 이금동



손종기 목사님의 신대원 방문 소감

수주일 전부터 목사님의 방문소식을 듣고 많은 원우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 왜냐하면 많은 원우들이 목사님의 ‘불타는 가슴으로’의 책을 이미 접하고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나는 2주일 전부터 교내 중보기도 팀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방을 쓰는 원우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했다. 목사님의 방문을 통해 원우들이 은혜도 받고 도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목사님께서 신대원에 오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원래는 강의만 요청이 들어왔으나 이미 오신 김에 채플까지 인도해달라고 교수님이 요청하였던 것이다.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셨겠지만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하셨다.

일반 목사님들이 신대원에 한번 설교나 강의하시려 오신다는 것은 교회는 물론 목사님 본인에게도 큰 영광이다. 왜냐하면 교단 산하의 1800 교회 3000여 목사님들 중에 신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으로써 지명도가 상당한 정도 되지 않으면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방문하는 교회마다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좀 더 여유가 있거나 특별한 뜻이 있는 교회는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하남은광교회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대원생들을 위한 점심을 대접하고자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을 헌금했다.

신대원에 교단 목사님들이 방문하는 날은 잔치 날이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풍성히 가져오시기 때문이다. 이날도 학생들의 환호는 대단했다. 강단에 올라오신 목사님은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넘쳐나 있었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어 보이셨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요한복음 21장 15-17이었다.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양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점심 먹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설교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러웠다고 평했다. 평소에도 들던 말씀인데 오늘날만큼 유난히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더러는 양을 먹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몰랐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원우들도 있었다. 설교의 끝부분에서 목사님은 “금보다도 귀하다.” 찬양을 힘차게 부르셨다. 이곡은 목사님이 신대원 다니실 때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홀로 맨 마지막 까지 남아 기도를 마치면서 부르셨던 찬양이라 더 은혜가 되었다.

식사 후 강의시간에 목사님은 그동안의 목회철학과 비전 하남은광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 등을 조리 있게 설명하셨다. 무려 2시간 동안의 특강이었지만 다들 흥미롭게 경청하는 모습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칠판에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쓰시고 수업을 마무리 하셨다.

교수님은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을 다음시간에 함께 나누어보자고 하시고 수업을 마무리 하셨다. 그 후 많은 원우들이 나에게 와서 크게 감동 받았으며 목사님의 뜨거운 가슴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목사님께서 약간의 저녁식사비를 주셔서 동기원우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원우들은 목사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핸드폰 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운날씨였지만 훈훈한 하루였다. 부디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했다.

이천구년 십일월 십칠일(신대원 방문의 날)
 신대원 3학년 김성훈 전도사

★ 제2차 교회지킴이 숙직제 순서 ★

순번	일자	성명	비고	순번	일자	성명	비고
1	10/6일	손종기	010-7283-8291	37	11일	박동수	010-5602-7559
2	7일	최지혁	010-3615-1638	38	12일	김용신	010-3008-6567
3	8일	문중승	010-7617-4070	39	13일	이귀남	062) 952-8590
4	9일	김성훈	016-627-7655	40	14일	임춘진	011-604-8516
5	10일	서향임	018-629-2785	41	15일	김신자	010-7752-8667
6	11일	전순이	010-2999-7540	42	16일	서금자	016-9225-2602
7	12일	이준호	062) 952-8590	43	17일	모순자	010-6610-5880
8	13일	김기태	010-4633-8667	44	18일	최옥기	010-4323-7101
9	14일	김문옥	010-2565-2602	45	19일	유금례	010-9455-9579
10	15일	김명관	011-640-9608	46	20일	이봉순	016-9601-3784
11	16일	이현일	011-625-6945	47	21일	황정선	016-640-9608
12	17일	이동만	011-609-0774	48	22일	임현옥	010-3907-2360
13	18일	곽세종	011-9607-9883	49	23일	장현자	010-3114-9886
14	19일	송희종	010-4370-7579	50	24일	조선경	010-5469-1670
15	20일	옥 룡	011-616-2360	51	25일	김복희	010-2622-9919
16	21일	김종철	010-7735-9917	52	26일	이난순	010-6310-2827
17	22일	최상윤	010-5059-8475	53	27일	박미정	010-3619-0362
18	23일	김요상	011-602-0724	54	28일	이정자	010-5509-0809
19	24일	김희중	010-5468-1670	55	29일	서점순	010-8944-8640
20	25일	진영만	010-605-2902	56	30일	김숙자	010-2360-5214
21	26일	김태석	010-8777-2827	57	12/1일	김동해	019-406-2586
22	27일	오광록	010-7603-9851	58	2일	방정원	010-9474-2787
23	28일	유영만	010-3629-3477	59	3일	진윤희	010-7488-9851
24	29일	김영근	011-638-1538	60	4일	장미옥	010-7704-9917
25	30일	한만희	011-9739-0484	61	5일	문채숙	010-5643-0198
26	31일	손문옥	011-9606-6487	62	6일	양혜숙	010-6873-2437
27	11/1일	조윤기	016-681-3784	63	7일	김점자	010-6653-0559
28	2일	한경택	011-633-7200	64	8일	김숙경	010-8245-5064
29	3일	장기술	011-9604-0577	65	9일	허경자	011-9607-8475
30	4일	최재현	010-6231-4589	66	10일	방봉순	011-605-3310
31	5일	박의하	010-2231-4684	67	11일	황생자	010-9877-1729
32	6일	장승준	010-6609-2782	68	12일	권화숙	010-7708-4315
33	7일	이대남	010-2615-5064	69	13일	김순심	010-7721-3238
34	8일	김재한	011-617-0571	70	14일	김용덕	010-2636-2114
35	9일	서진옥	010-5446-5357	71	15일	유양덕	010-5339-1831
36	10일	이병권	010-6203-8640	72	16일	김정숙	010-2467-2113

※ 당일 숙직자는 다음날 숙직자에게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를 위해서 기도(기도문), *교회 상황 점검, *교회 문단속

11월 27일 금요기도회 (제 1 남전도회)

기도의 무기는 승리와 패배 사이를 갈리게 합니다. 최고의 갑주를 입고 강한 의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무시하면 틀림없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치 이는 작전 없이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의 승리를 이룹시다. ※

찬양 및 합심기도	다	같	이
대표기도	이	현	일
특송	제1남전도회원	일동	
설교	손	종	기
개인기도	다	같	이

합심기도제목		
교회	● 당회를 위해서(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 성도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기도전도	●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성도되게 하소서	
	● 부흥집회를 은혜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기도전도	● 항상 기도하는 성도되어 영적전쟁 승리하게 하소서 ● 가족과 이웃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조윤기 집사
개척	● 북한에 7개(신의주,평양,원산,함흥,청진,나진,고무산)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 인재, 물질, 지혜와 여건을 허락 하소서 ● 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혜와 인재와 물질을 허락 하소서	이병권 집사
직분	●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게 하소서 ● 2010년 임원선출, 일꾼들이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소서	기공서 집사
교육기관	● 교육 기관의 학생들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 시간을 정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되게 하소서	합심기도
국가선교	●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 국가, 민족, 선교사, 미자립,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합심기도
성도	● 병원입원성도, 군복무, 결혼준비, 취업준비, 타지역 생활자녀 위해 ● 행동으로 가족구원, 전도로 이웃구원, 헌신으로 민족구원, 풍성한 전도 열매 맺게 하소서, 질병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소서.	